



22112331



International Baccalaureate®
Baccalauréat International
Bachillerato Internacional

KOREAN B – STANDARD LEVEL – PAPER 1
CORÉEN B – NIVEAU MOYEN – ÉPREUVE 1
COREANO B – NIVEL MEDIO – PRUEBA 1

Friday 13 May 2011 (afternoon)
Vendredi 13 mai 2011 (après-midi)
Viernes 13 de mayo de 2011 (tarde)

1 h 30 m

TEXT BOOKLET – INSTRUCTIONS TO CANDIDATES

- Do not open this booklet until instructed to do so.
- This booklet contains all of the texts required for Paper 1.
- Answer the questions in the Question and Answer Booklet provided.

LIVRET DE TEXTES – INSTRUCTIONS DESTINÉES AUX CANDIDATS

- N'ouvrez pas ce livret avant d'y être autorisé(e).
- Ce livret contient tous les textes nécessaires à l'Épreuve 1.
- Répondez à toutes les questions dans le livret de questions et réponses fourni.

CUADERNO DE TEXTOS – INSTRUCCIONES PARA LOS ALUMNOS

- No abra este cuaderno hasta que se lo autoricen.
- Este cuaderno contiene todos los textos para la Prueba 1.
- Conteste todas las preguntas en el cuaderno de preguntas y respuestas.

본문A

신종인플루엔자

최근 전세계적으로 신종인플루엔자 A(H1N1) 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감염 후 1-7일 사이에 증상이 나타나므로 입국시에 감염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입국 후 아래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담과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발열, 콧물 또는 코막힘, 인후통, 기침

상담. 진료시에는 해외방문 국가와 일정, 국내 활동사항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 이웃의 건강과 안녕을 지키는 소중한 실천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www.cdc.go.kr)로 확인하시거나 전화 129 또는 전화 13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립검역소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

본문B

소나무

- ① 적송이라고 불리는 소나무는 우리나라의 전역에서 볼 수 있는 전통 소나무를 말합니다. 적송은 나이를 먹을수록 잎 부분이 붉게 변하고, 껍질이 거북등처럼 갈라지는 등 다른 소나무와는 다릅니다. 우리 민족은 소나무와 땔래야 땔 수 없는 관계로, 소나무는 왕을 상징하는 나무이자 학자들의 나무였고, 가난한 사람들의 나무이자 부자들의 나무로 알려져 있어우리 민족의 상징적인 나무라 할 수 있습니다.
- ② 현대에는 소나무는 특히 부와 성공의 상징으로 현대그룹의 고 정주영 회장 역시 소나무 애호가로 그의 별장에는 지금도 많은 소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서울의 대표적인 부촌으로 불린 강북 한남동과 성북동을 비교하면 경영자가 많이 사는 성북동쪽은 소나무 조경을 사용한 주택이 더 많은 편입니다.
- ③ 잎이 두 개씩 달리고 열매로 솔방울이 열리는 우리나라 소나무는 가정집 정원수로 가장 어울리는 나무입니다. 미국의 가정집에서도 인기가 높을 정도로 이는 그만큼 생육이 용이하고 수형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 외 잎이 세 개씩 열리는 북아메리카 원산지의 리기다 소나무도 있으면 우리나라에는 1900년 경부터 수입되어 심어졌습니다. 리기다 소나무는 생활력이 강해 습지나 건조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지만 우리 소나무에 비해 재질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 ④ 조선왕조 (1392-1910)는 궁궐을 짓는 데 오직 소나무만 사용하였답니다. 전통적으로 사찰이나 민가 등에서 큰 규모의 목조건물을 지을 때는 주로 참나무, 느티나무, 전나무 등을 소나무와 함께 사용하였지만, 임금의 거처인 궁궐은 오로지 소나무로 지었습니다. 우리 땅에서 자라는 나무들 중 소나무가 가장 강하고 또 가장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으뜸나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선왕조에서도 500여년 동안 이 소나무를 정책적으로 엄격하게 함부로 베지 못하게 관리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나무 이야기〉 박영하 2004

본문 C

세종학당



▲ 중국 선양의 주말 한글 학교인 마리세종학당에서 학생들이 선생님의 질문에 손을 들어 대답하고 있다.

- ❶ 지난 2007년 12월16일 중국 칭다오 지역에 세종학당이 들어섰다. 중국 국가교육부와 해당국의 허가를 받고 해양대학교와 국립국어원과 협정에 따라 설립되었다. 세종학당은 본교 한국연구센터 밑에 두어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의 이해’를 병행했다. 앞으로 한국학의 연구와 기반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했다.
- ❷ 세종학당의 학사 일정은 중국 해양대학교 학사 일정에 따라 1년에 두 학기를 운영한다. 세종학당은 한국어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습력을 강화하기 위해 엄격하고도 세부적인 학사 규정을 만들어 수강생들에게 적용·관리하고 있다. 또, 현지의 세종학당을 중심으로 하나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세종학당의 수강생들은 중국 사회의 다양한 분야 (학생·직원·주부·노동자·교직원·공무원·회사원 등)에 속해 있지만, 세종학당을 중심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집단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 ❸ 칭다오의 세종학당은 수많은 비정규 한국어 교육 기관들이 안고 있던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해결했다는 의의도 가진다. 특히 한국어 교육을 받고자 하는 모든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세종학당의 개방성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것은 정규 교육 기관, 즉 대학에서의 한국어과가 한국어 수요를 다 만족시킬 수 없었던 것을 극복하게 해주고 비정규 교육 기관이 안고 있는 전문 교사와 교육 과정의 문제를 극복하게 해준 것이다.
- ❹ 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적지 않게 남겼다. 수강생을 빼앗길 것에 대한 우려에서 생긴 지역 비정규 교육 기관과의 마찰이 첫 번째 과제이다. [- 21 -] 해양대학교 내의 비정규 교육 기관이 한국어 전공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세종학당 설립 당시 원장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이것은 앞으로 세종학당과 현지 비정규 교육 기관이 차별화되어야 한다는 숙제를 남기기도 했다. 단순히 세종학당의 비영리성만을 차별화 전략으로 내세워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이다.
- ❺ 세종학당의 차별화를 위해서는 한국어 교육과 함께 한국 문화의 이해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한국어 수업과 함께 다양한 문화 소개, 체험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 한다. 세종학당은 그동안 다양한 한국 문화 관련 행사, 특히 한복 입고 사진 찍기, 김치 만들기, 김밥 말기 등 한국 문화의 특징을 알 수 있는 수업을 많이 개발했다. 지난해 6월에는 한국관광공사의 후원으로 ‘산둥성 대학생 한국어 노래 자랑’이라는 행사도 마련했다.
- ❻ 표준교육 과정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 장기적으로는 중국 내 모든 세종학당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전문적이고 검증된 교사를 지원해야 한다. 세종학당은 단순히 한국어 교육기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한국 문화를 소개할 수 있어야 한다.

<시사저널> 2009.9.30

본문 D

개인정보이용동의서

학원서 웬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국제중 합격때 학원홍보 위해 요구 ‘문의’

초등학교 5학년 딸을 둔 황영희(가명·41)씨는 이달 초 아이를 서울 목동의 국제중 대비 전문학원인 ㅅ학원에 등록시키려다 황당한 경험을 했다. 학원 쪽에서 ‘학원 실적 활용 동의서’라는 서류를 주며 작성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학원 쪽은 “자녀가 우리 학원에 다녔다는 것을 증명하고, 나중에 아이가 합격했을 경우 학원 홍보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씨는 “어린아이의 개인정보를 이용한다는 말을 듣고 찝찝했지만, 학원에 보내기 위해 어쩔수 없이 서류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이 학원은 방학 중 4주 동안 오전 10시~밤 10시까지 영어·수학·과학·사회 등의 수업을 들으며 국제중 입시를 준비하는 ‘10 to 10’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4주 학원비는 교재비와 간식비 등을 합쳐 무려 200여만원에 이르고, 등록하려면 황씨처럼 ‘학원 실적 활용 동의서’라는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까지 내야 한다.

그럼에도 이 학원은 시험을 치러 합격해야 등록할 수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광고 등을 통해 국제중에 많은 학생을 합격시킨 학원으로 소문이 났기 때문이다. 학원 관계자는 “지난해만 21명의 학생들을 청심국제중에 입학시켰다”며 “이는 청심국제중 합격자의 20~25%가 우리 학원 출신이라는 뜻”이라고 자랑했다.

그러나 이 학원이 광고에 이용한 학생들의 학부모 16명은 지난달 “부모 동의 없이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광고에 이용했다”며 관할 교육청인 강서교육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강서교육청은 지난달 28일 이 학원에 대해 벌점을 부여하는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이 학원에 다녔던 한 학생의 부모는 “학원 광고에 학생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되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아 문제의 소지를 없애려 하는 것 같다”며 “겨우 4주 다녔을 뿐인데, 자기 학원 덕에 합격했다고 광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 학부모는 “과장 광고를 해 학생들이 물리자 지난해 60만원 정도였던 학원비도 3배 넘게 올랐다”고 덧붙였다. 이 학원은 학원 수강시간과 학원비를 공개하도록 한 지침도 위반한 채 전화로만 상담을 받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이 수강 등록때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며 “수강료 공지 의무 위반과 과도한 수강료도 단속 대상”이라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2009.8.21